

우윳값 인상 카운트다운...“원유 가격 19일까지 협상”

한달 넘게 가격 조정...낙농가 생산비 상승에 인상 사실상 확정 ℓ 당 69~104원 범위서 인상 폭 결정...1ℓ 우유 3000원 넘을 듯

올해 우유 원유(原乳) 가격을 정하기 위한 낙농가와 유업체들의 협상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낙농가와 유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오는 19일을 협상 기한으로 설정한 채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기한 내 협상이 마무리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우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협상 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원유 가격 인상이 어떻게 결정될 지도 관심

심을 모은다. 16일 정부와 유업계 등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지난달 9일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원유 가격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낙농가와 유업체가 인상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한 달을 훌쩍 넘겼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오는 17일과 19일 두 차례 더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우유 원유 가격의 상승은 사실상 예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농가의 생산비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생산비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 가격도 따라 오른다. 올해는 원유 ℓ 당 69~104원 범위에서 가격 인상 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유값이 인상되면 이를 주재료로 쓰는 흰 우유 제품도 상승한다.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원유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가 사서 먹는 1ℓ짜리 흰 우유의 가격은 3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계 유통업계의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원유 기본 가격이 ℓ 당 49원 인상되자, 각 유업체는 흰 우유 제품 가격을 10% 인박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흰 우유 1ℓ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2800원대로 올랐고, 매일유업의 900ml짜리 흰 우유 제품 가격은 2610원에서 2860원으로 인상됐다. 작년에는 1ℓ 또는 900ml짜리 흰 우유 제품 가격이 3000원을 밑돌았으나, 올해는 원유값 인상에 따라 3000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올해 원유값 협상 기한을

19일로 정했지만,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낙농진흥회 한 관계자는 “협상이 급하게 진전될 수도 있지만, 기한이 다시 연장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협상 기한은 당초 지난달 30일이었으나, 이달 19일로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한편, 소위원회와 별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과 12일 유업계, 낙농업계의 의견을 차례로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박종택 본부장을 비롯한 농협전남본부 관계자들이 빛가람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직원들에게 팜스테이 안내장과 다육식물을 나눠주며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올 여름 휴가는 농촌에서 몸과 마음 치유 받으세요”

농협 전남본부,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전개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최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름 휴가철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남농협은 출근하는 기관 임직원들에게 '팜스테이' 안내장과 다육식물을 나눠주며 캠페인의 참여와 확산에 힘써주길 부탁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캠페인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며 “농촌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팜스테이'는 농협이 주관하는 농촌체험 브랜드로, 농가에서 먹고 자면서 농사, 생활, 문화 체험과 주변 관광지 관광, 마을축제 참여 등 농촌과 문화, 관광이 결합된 농촌 체험여행이다. 현재 전남지역은 24개의 팜스테이 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안내는 팜스테이 홈페이지(www.farmstay.com)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농관원,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소·돼지·닭 등 식용 육류와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4개 품목 가운데 배추김치(2위)를 제외한 3개 품목이 축산물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농관원은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식육 가공업체,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사법경찰관 16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수시농협, 사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도농상생 상호기부 진행

농협여수시지부(지부장 권용대)는 최근 여수시 소재 농협 임직원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 1000만원을 경남 사천시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권용대 지부장, 박현영 조합장(여수농협), 박상근 조합장(여천농협), 박계수 조합장(여수축협)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여수시농협과 사천시농협 간 상호 기부 형태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6월 사천시 범농협 임직원 100여명은 여수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권용대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도농상생 발전과 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여수와 사천이 서로 도움과 상생의 문화를 계속 발전시킬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북광주농협,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 개장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은 최근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북광주농협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을 개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북광주농협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은 2021년 11월 착공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준공 승인을 얻어 개장하게 됐다. 연 면적 6833㎡(2067평) 규모로 지상 1층에는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 2층에는 북광주농협 금융점포, 3층에는 문화센터가 운영된다. 북광주농협은 개장을 기념해 첫 방문고객 기념품 증정 행사와 함께 사은품 증정,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상봉 조합장은 “농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저렴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으로 농



업·농촌과 지역사회를 향한 농협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

